

중국의 전력 프로젝트와 투자여건의 개선

1. 투자에 대한 수익률

홍콩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아시아의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투자가인 골돈 우(Gordon Wu) 씨는 6개월의 협상 끝에 파키스탄의 거대한 528만kW의 발전단지에 대한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시아는 더욱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면서 크게 팽창하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활동으로 다른 민간재원에 의한 발전소건설이 여기저기서 계획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가장 전력수요의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의 하나인 중국은 과거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경원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베이징(北京)의 관료들이 외국인들은 너무 욕심이 많다고 판단한 1993년말까지 투자자들은 떠나가 있었다. 중국의 관료들은 처음에 발전소 투자에 대한 연간 수익률(Rate of Return)을 12%로 제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제 이것이 15% 정도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18%(및 그 이상)에 비하면 아직 낮은 실정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각각 다른 수익률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람을 혼동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며, 프로젝트라는 것은 보다 더 복잡하고 색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몇 년간 중국에서 외국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대형 전력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 없으며, 중국은 자체의 발전설비 확장계

획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2. 투자환경의 개선

중국은 이제 보다 더 유연하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대처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한가지 징후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발전소 효율에 연계시키려는 의도이다. 이것은 고정된 발전량에 대하여는 아직 15%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소가 그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추가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추가발전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이익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소규모 거래가 1995년 3월에 중국의 변창 일로에 있는 광둥(廣東)성의 35만kW 기름연소 발전소의 1단계건설을 위한 조인트 벤처에서 미국의 거대기업인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시즈(Public Service Enterprises)의 자회사인 씨이에이 아시아(CEA Asia)와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Wu) 회장이 중국의 발전소들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우 회장은 1987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건설-운영-인계(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나 그 후 그는 십여 개의 다른 발전소 건설계획을 취소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회사인 컨솔리데이티드 일렉트릭 파워 아시아(Consolidated Electric Power Asia: CEPA)는 홍콩과 중국의 국경상의 중국 도시에 건설하게 되는 264만kW 발전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CEPA의 한 간부는 중국에서 태도변화를 보인 수익률의 상향조정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3. 매년 3000만kW의 발전소 건설

중국의 이와 같은 투자유치를 위한 변화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구기관인 디알아이/맥그로힐(DRI/McGrawHill)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향후 20년간에 계획된 경제 성장에 맞추어 나가려면 모든 형태의 에너지 공급과 배분을 위한 설비에 1조 달러만큼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투자액의 약 50%는 매년 3000만kW의 발전설비 신설에 필요하며—이것은 매년 영국의 총 발전 설비용량의 40%씩을 새로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기대의 상한치를 의미하는 것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중국의 국내 전기산업은 그 자체로서는 필요한 확장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홍콩에 근거를 두고 있는 DRI의 에너지 경제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바렛(Christophe Barret) 씨는 중국은 서방의 기술 수입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전기요금의 자율화로 전기요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 후에도 새로운 발전설비용량의 80% 이상에 대한 부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의 새로운 발전소 건설에서 11%에 해당하는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중국은 발전소건설에 수반하는 거래를 보다 더 매력적인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The Economist, 1995.4.22)

아랍 에미리트(UAE)의 전력사업과 프로젝트 근황

1. 순조로운 전력 프로젝트의 수행

다른 걸프(Gulf) 지역의 전력부문에서는 프로젝트의 지연과 전력사업의 민영화 등이 이야기거리로 되어 있으나 아랍 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 UAE)에서는 그와 같은 복잡한 사정은 별로 없는 듯하다. 자금조달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연방에서 전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별로 문제점을 경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50만kW의 신설발전소는 현재 설치작업중이며 계속되는 주요 배전프로젝트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네개의 전력회사가 어떤 지역에서는 연간 20%가 증가하는 침투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중에 있다.

UAE는 전력부문에 있어서 운이 좋은 위치에 있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만족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여름의 피크시기에 수요가 공급능력을 벗어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부적정한 투자는 북부 에미리트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계속적인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조차 무사페(Mussafeh) 공업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회사들은 전력부족으로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놀리고 있는 형편이다.

2. 전기요금의 상황 조정

당국은 전력수요의 증가가 삶의 실태로서 회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수용하고 그 대신 이제 수요에

따르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도 분담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1994년 후반기에 전기요금이 kWh당 7필스(filis)에서 15필스로 두배 이상 인상되었다. 이러한 요금의 추가 인상은 여러 정부기관에서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모두 없애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바이(Dubai)에 상주하고 있는 한 국제 건설터트는 “현대식 가스연소 발전소에서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는 약 20필스가 소요된다. 그리고 수·전력성(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 MEW)에서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1kWh의 전기생산 비용은 30~35필스로 상승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의 생산가격과 판매가격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3. 전력수요의 증가

최초의 전기요금 인상은 수요의 연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라기보다는 전력판매 수입의 증가를 고려한 것이다. 추가로 축적되는 자금은 전력회사들로 하여금 끝없이 이어지는 설비 성능향상과 그들의 송배전망 확충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이다.

아부다비 시의 수·전력국(Water & Electricity Department : WED)에서는 타월라 비(Taweelah B)와 밀파(Mirfa)에 90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 중에 있으며 1996년 중반에는 발전설비 시설용량이 300만kW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1996년 여름의 피크 전력수요가 270만kW에 달할 것으로 상정되어 있어 이미 다음 단계의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1995년 중에는 국제 건설터트에 의한 타월라 에이(Taweelah A) 발전소에 40만kW의 발전설비와 수송용량 1일 4000만 갤론(mgd)의 송유관 설비에 대한 입찰이 예정되고 있다.

4. 마스터 플랜의 검토

타월라 씨(Taweelah C) 발전소와 밀파의 제 2

발전소 등이 포함된 발전소건설 프로젝트가 소문으로 나돌고 있다. 그러나 상세한 프로젝트의 구성내용은 벡텔(Bechtel)사가 진행중인 2010년까지의 전력과 물의 수요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완성될 때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부다비에서의 새로운 발전소 프로젝트는 잠정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게 될 수도 있겠으나 에미리트의 다른 곳에서는 계속해서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말에는 에미리트 무역청(Emirates Trading Agency)이 아부다비의 전력 대량공급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132/11kV 변전소 2개소 신설과 2개소 확장공사를 위한 1억4700만 디함(Dirham : Dh, 1994년 3월 현재 Dh 3.67 = \$1 US)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취리히(Zurich)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이비비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ABB Asea Brown Boveri)는 동일 프로그램으로 132/11kV 무사페(Mussafeh) 변전소의 확장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미쓰이 회사(Mitsui & Company)는 자기들이 건설한 바 있는 변전소들의 확장과 성능개선을 위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5. 송배전망의 구축

그러나 향후 2년간 더 많은 사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의 케네디 앤드 돈킨(Kennedy & Donkin)이 건설터트로서 관여하고 있는 아부다비 220kV 보강 프로그램의 1단계 공사 패키지에 대한 입찰이 지난 4월말에 있었다. 이 입찰은 무사페에 220kV 변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며, 후속 사업으로 다른 220kV 변전소와 두 개의 132kV 변전소 건설 패키지가 뒤따르고 있다.

독일의 라메이엘 인터내셔널(Lahmeyer International)은 최근에 밀파 발전소와 아부다비간을 연결하는 220kV 연계송전선로 프로젝트의 건설터트로 임명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3~4년 계획으로 송전선로 건설과 두 개의 220/33kV 변전소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독일의 건설터트는 아부다비 시내의 모든 변전소를 연결하는 132kV 지중 케이

블 전력망 프로젝트의 최저용찰자이기도 하다.

6. 급전지령소의 설치

WED는 자체의 전력공급과 설비의 매니지먼트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 입찰안내서 발행 이후 5년이 지난 지난 1월에 WED는 스웨덴의 에이비비 네트워크 컨트롤(ABB Network Control)과 에미리트의 급전지령소(Load Dispatch Center) 건설에 따른 65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탈리아의 안살도 에너지(Ansaldo Energia)는 비슷한 규모의 알 아인(Al Ain) 발전소의 복원 및 개선 프로그램을 수주하여 수행중에 있다. 향후 2개년간의 기타 WED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추정 발주금액 1억달러 규모의 계약에 대한 결정은 아직 보류중에 있다.

아부다비만이 자금을 투입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추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두바이(Dubai)에서도 1998년까지 전력계통에 98만kW의 발전설비를 증설하고, 두바이 수·전력청(Duba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 DEWA)으로 하여금 연간 수요 증가 12%에 대처하기 위한 4개년 프로그램이 진행중에 있다. 현재 에미리트의 발전설비 시설용량은 185만 9000kW이며, 1994년도 여름의 피크 전력수요는 139만 1000kW에 달하였다. 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 엔지니어는 “여기에서는 공급력의 안정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래에 공급과 수요 사이에 적정한 쿠션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없을지 우려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시켜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7. DEWA의 발전계획

DEWA의 발전계획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벨 알리(Jebel Ali)에서는 보다 새로운 발전소의 확장과 능력향상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비비 크라프트웬케(ABB Kraftwerke)는 E 발전소에서 10만kW 스팀 터빈을 추가하여 콤파인드 사이클로의 변환공사의 중간과정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 안살도는 최근에 E 및 G 발전소에서 백 프레셔 보일러 설치를 포함한 보다 큰 프로젝트를 위하여 작업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지난 2월에 체결한 1억3100만달러의 계약에 의해서 이탈리아 업체는 10만kW 가스터빈 하나와 두 개의 7만kW 스팀 터빈을 제벨 알리 G와 65,000kW의 터빈 하나를 E 발전소에 공급, 설치하게 된다.

제벨 알리 콤플렉스내의 오래된 발전소에 대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DEWA의 현재의 초점은 발전용량 확장에 있어서 두번째 요소를 실현시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오지에 위치한 알 아윌(Al-Awir)에서 약 Dh 10억의 투자로 60만kW 발전소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오픈 사이클의 가스터빈 설비에 대한 건설을 위한 입찰이 지난 4월에 공고되었으며, 1995년 가을에는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8. 배전선로 네트워크

DEWA는 또한 배전선로 네트워크 구축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만(Oman)의 바완 엔지니어링 회사(Bahwan Engineering Company)는 세 개의 132kV 변전소—알 고제(Al-Ghoze), 제벨 알리(Jebel Ali) 자유구 및 세이드(Said) 항—그리고 제벨 알리의 기설 132kV 설비의 확장을 위한 43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최근에 다섯개의 국제 컨설턴트들이 제벨 알리와 미스레프(Mishref)를 연결하는 400kV 송전선로 프로젝트에 대한 용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장의 다른 곳에서의 활동은 보다 더 기복이 심하다. 샤르자(Sharjah)와 북부 에미리트는 전력수요가 두바이와 마찬가지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현금 공급에 대한 연중 끊이지 않는 문제가 프로젝트에 대하여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9. 탈염설비와 파이프라인

샤르자(Sharjah)의 양상은 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에미리트의 라야(Layyah)에 있는 주요 발전

소에서 향후 3년간에 걸친 27만kW의 발전설비 용량의 추가와 20mgd의 탈염 용량증설을 포함한 Dh 6억6000만 규모의 확장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첫번째 계약이 1995년초에 인도의 도드살(Dodsal)에게 주어졌으며 이것은 사자(Sajaa) 유전으로부터 발전소까지 42km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추진의 마지막 장애물이 인도의 계약자가 포르투갈(Portugal)의 애피사 은행(Banco Efisa)으로부터 이 공사를 위한 2570만달러의 중간기간의 차관을 확보함으로써 제거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들은 그렇게 순조롭게만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살도는 지난 1월에 5mgd 용량의 탈염설비 공급에 대한 사업수행 지시서를 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자금부족으로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발주자는 터빈 공급자에게 1996년 중반까지 이곳에 추가로 10만kW의 터빈을 설치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영국/프랑스 그룹인 지이시 알스툼(GEC Alstom)이 발주자인 샨자 수·전력국(Sharjah Water & Electricity Department : SWED)에 과거에 터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수주경쟁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10. 전국 연계송전망의 계획

북부 에미리트에서도 전력부문이 활발하였으며, 1994년 늦게 21만kW의 발전설비의 공급과 설치를 위한 두 개의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영국의 유뱅크 프리스(Ewbank Preece)에 의해서 감독을 받는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유로피언 가스 터빈즈(European Gas Turbines)가 아지만(Ajman)에 설치하게 될 두 프레임의 여섯 대의 터빈을 공급하게 되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General Electric Company : GE)가 라스알카이마(Ras al-Khaimah), 움알카이와인(Ummal-Qaiwain), 다이드(Daid) 및 퀴드파(Qidfa)에 설치하게 되는 다섯 대의 터빈을 공급하게 된다.

배전 네트워크의 개선과 북부 에미리트를 연방의 다른 부분과 연계시키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아부다비를 북부 에미리트의 송전망에 연계시키는 상세설계를 담당하게 될 컨설턴트의 임명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연방의 수·전력성은 서부해안 연계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승인을 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스알하이마와 아지만(Ajman) 그리고 움알카이와인을 연결하는 220kV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컨설턴트의 초청입찰이 곧 있을 예정으로 있다.

(자료 : Middle East Economic Digest, 1995.5.19)

인도의 지방선거와 투자여건의 변화

1. 지방선거와 주(州) 정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은 미국의 엔론(Enron)사가 인도의 서해안에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9억2천만달러짜리 질문이다.

마하라슈트라주(州) 내각의 프로젝트 재검토위

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지난 7월 18일에 주정부의 수석 장관인 마노할 조사(Manohar Joshi)씨에게 제출되었다. 인도에서는 놀라운 사실로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

있던 것이다. 이것은 인도에서 국제적인 투자자와 국내 투표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2. 새로운 주정부의 견해

선택은 이 프로젝트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재정 합의서에 대하여 재협상을 할 것인가, 또는 이 프로젝트가 인도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다는 근거에 입각하여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없앨 것인가의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인 부수석 장관인 고포나드 문데(Gopinath Munde)씨는 지난 3월에 있는 주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가혹한 비판을 가하였으며 그 결과 승리대열에 끼게 된 것이다. 마하라슈트라주에서 국민의회당(Congress Party)의 몇십 년간의 집권기간의 마지막 주수상으로서 샤라드 파와르(Sharad Pawar)씨가 물러남으로써 그후 문데씨는 적의에 찬 성명서들을 발표하면서 더욱 강경한 반엔론 입장에 서게 되었다.

3. 프로젝트의 중단 위기

그러나 조시 수석장관은 이 평가위원회의 권고를 자동적으로는 따르지는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정부관리들과 재정, 법률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협의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것은 미국 휴스턴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엔론사와의 협상에서 체면을 유지해 가면서 양보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임이 틀림없다.

조시 수석장관은 엔론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은행들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이상 돈을 더 투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엔론은 이미 약 5억달러가 집행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만일 프로젝트가 취소된다면 인도정부에 청구해서 받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 계속되는 논쟁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엔론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져 버렸다. 이 재검토는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 인도에서의 투자자 신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봄베이(Bombay)의 라자드 신용자금 회사(Lazard Credit Capital Finance Corp.)의 우다얀 보세(Udayan Bose) 회장은 “계약에 대한 재검토 게임의 다음차례는 같은 정부내의 장관들 간에서 일어날 것이다. 새로 부임하는 각 각료는 그의 전임자에 의해서 서명된 계약에 대하여 재검토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끝이 없는 게임이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이 시작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리사(Orissa)주에 새로 설치된 의회정부는 미국의 에이이에스 트랜스파워(AES Transpower)가 계획하고 있는 입 밸리(Ib Valley) 석탄화력발전소를 뒷받침하고 있는 합의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州)의 수석각료는 전체사업비 199억 루피(6억3500만달러)중에 초과분비용 25억 루피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사업비에 대한 견해

엔론과 AES의 발전소는 인도정부가 전력부문에 민간투자를 개방하기로 한 1991년 9월의 뉴델리(New Delhi) 결정의 결과에 따른 가장 앞장선 프로젝트들인 것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자금조달원을 확보하고 인도의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보증하는 전력 매매계약(Power-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한 단 두개의 민간투자 회사들인 것이다. 여섯 개의 다른 전력프로젝트들은 아직 협상단계에 머물고 있다.

엔론 프로젝트는 수개월 전에 전력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광범위하게 도전을 받아 왔다. 대부분의 에너지 경제학자들은 1997년의 전력판매 개시가격인 2.40루피와 1,000kW 당 자본비(130만달러)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

6. 당초의 합의조건

그러나 인도의 대외 경제력이 매우 빈약한 때인 1992년에 협상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여러 가지의 보증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보장된 가격에 대한 환 리스크의 인도측 부담, 마하라슈트라 주전력청으로부터의 발전소 정격용량의 90%의 전력의 구입과 대금지불 합의 그리고 중앙정부의 채무이행 보증 등이다.

AES는 보다 표준가격에 의한 매매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는 발전은 부하율 68.5%까지는 투자보수율 16%를 보장하고 그 이상에 대한 전력생산에는 추가적인 이익을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비우호적인 거래

전력관계 협상에 참여하였던 외국 변호사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인도에 대한 진출을 고려하고 있던 외국 전력회사들은 그들이 인도의 상대자에게 12년 또는 더 긴 기간에 걸친 전력매매 합의서에 대한 광범위한 법률 및 재정적인 상세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가들이 인도측이 비우호적인 거래를 하였거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무르익은 상태이다. 마하라슈트라 주의 재검토위원회 문데 위원장의 암시에 의하면 그 위원회에서는 전임 샤라드 파왈(Sharad Power) 정부에게 금전을 지불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도가 기만당하였다는 암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8.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엔론과 관련된 논쟁은 새로 성립된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내에서 서로 싸우는 태도를 발생시키게 되

었다.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州)의 특전을 덜 가진 대부분이 마라티(Marathi)어를 사용하는 주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쉬브 세나(Shiv Sena)당은 이미 계약된 조건들을 받아들일도록 양보함으로써 외국투자가 들어오도록 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힌두민족주의의 바르티야 자나타(Bharaatiya Janata) 당인 소수를 점하고 있는 측은 엔론을 추방함으로써 외국 것은 무엇이나 배척하는 상징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이다.

엔론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하라슈트라 주전력청에게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자산의 큰 덩어리를 나누어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도 이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안은 엔론이 거의 1년간 생각하고 있던 대책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일은 엔론의 80% 지분을 50% 이하가 되도록 매각함으로써 인도의 프로젝트와 자체의 회계가 합쳐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전력요금이나 투자비용의 조정은 정부, 기자재 공급자 그리고 은행들과의 사이의 얽히고 설킨 합의서에 대한 재작업을 의미한다.

9. 인도에 대한 시각

계약 거부의 위협하에 엔론이 양보를 하게 된다면 인도에 대한 외국투자 조건의 평판에 손상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BJP의 경제고문인 제이 두바쉬(Jay Dubashi)씨는 더 많은 전력회사들이 엔론과 같은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은행가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라자드 신용자금의 보세 회장은 문데 위원회를 지칭하면서 “이제 공은 그들 코트에 들어와 있다. 그들은 엔론보다 저렴한 가격의 발전소를 만들어 자기들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료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5.7.27)